

Ⅲ 금융규제 개혁안 합의내용

1.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(바젤Ⅲ)

가. 자본 구성 강화

- 은행이 보유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기준(바젤Ⅱ)보다 크게 강화하였으며, 시기별·국가별·은행별로 규제비율을 차등화
- 요구자본(총자본)비율(BIS 비율)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8%가 그대로 유지되나,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통주 자본과 기본자본(Tier1)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비율을 높이기로 함.
 -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행 2%에서 4.5%로 규제 수준을 강화하며, Tier1 자본을 현행 4%에서 6%로 상향 조정

〈그림 1〉 자본규제비율 변화

	BaselⅡ	BaselⅢ				
		최소요구 자본	자본보전 Buffer	경기대응 Buffer	SIFI 추가자본	손실부담 채권
보통주 자본비율	2%	4.5%	2.5%	0~2.5%	?	?
기본자본 비율	4%	6%	2.5%	0~2.5%	?	?
총자본비율	8%	8%	2.5%	0~2.5%	?	?

자료 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0.10.14),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 현황

- 위기 시 손실보전 등에 필요한 자본적립의무가 신설되었는데, 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의 2.5%에 해당하는 고정완충자본(보통주자본)을 매기마다 적립해야 함.

○ 과도한 신용팽창 시 0~2.5%의 경기대응 완충자본(보통주 자본 또는 기타형태의 자본)을 감독당국이 요구할 수 있음.

- 신용팽창 여부는 시점별 GDP 대비 신용 비율을 산출하여 장기 평균선과의 차이, 주관적 평가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결정

○ SIFI나 손실분담(Bail-in)채권¹⁾에 대한 추가 자본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임.

■ BIS 비율이 높으나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여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인 보통주 자본을 종전보다 엄격히 정의하여 자본의 질 강화

○ 손실흡수력이 큰 보통주 자본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정의하고 자본조정항목을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

- 위기 발생 시 실질적 자본가치가 없는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, 이연법인세, 비연결 금융사 투자지분, 자기주식 등의 경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.

- 무형자산 중 모기지서비스권리, 이연법인세 중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등은 보통주 자본의 15% 한도 내에서 자본으로 인정하며, Tier1 및 Tier2 자본의 적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음.

■ 자본비율 증가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감소에 따른 편익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양(+의) 순편익 기대됨.

1) 손실분담(bail-in)채권은 구제금융(bail-out)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권보유자에게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. 정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적 bail-in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손실부담이 가능한 반면, 계약상 bail-in은 선순위 채무에만 손실부담이 가능함.

-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 평가 보고서, BCBS의 장기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, 자본비율이 1%p 상승할 경우 GDP는 0.19%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위기발생확률 감소로 인한 편익은 GDP의 약 1.4%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나.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

- 손실규모에 비해 자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, 파생상품,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을 계산하고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
 - 규제자본체계 강화조치를 통해 구조가 복잡한 증권화 상품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
 - 자산유동화 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(CDOs of ABS) 등 재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, 부외거래수단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
 - 트레이딩 계정의 경우 위기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Stressed VaR를 추가로 부과
 -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축소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및 RP 등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확대

다. 레버리지비율 도입

-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존 바젤II 자기자본비율과 달리,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

- 최저 레버리지 비율은 명목 금액 대비 Tier1 자본을 3%이상 유지하도록 설정

$$\text{레버리지비율} = \frac{\text{Tier1 자본}}{\text{명목 익스포져}} \geq 3\%$$

- 부외항목도 명목금액을 익스포져로 포함하며, 파생상품은 상계를 허용하되 주석사항인 거래원금에 대해 미래평가손익 추정치 분을 익스포져로 반영
- 2017년 말 까지 레버리지비율 도입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점검한 후 2018년부터 규제로 이행할 예정임.

라. 유동성비율 도입

-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잠재적 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만기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제 최저 유동성 기준을 도입
-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의 유동성 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의 단기(LCR) 및 중장기(NSFR) 유동성 규제 도입
- 유동성 규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유동성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충당비율(LCR : Liquidity Coverage Ratio)규제와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순안정자금비율(NSFR : Net Stable Funding Ratio) 규제를 주된 골자로 함.
 - 유동성충당비율(LCR) 규제는 위기발생 시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순현금 유출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.

$$LCR = \frac{\text{고유동성자산}^*}{\text{순현금유출}^{**}} \geq 100\%$$

* 고유동성자산 : 위기상황에서도 매매처분에 별다른 제약 없이 현금화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산

** 순현금유출 : 위기상황에서 30일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이탈규모 및 자산의 현금유입규모의 차액

- 순안정자금비율 규제(NSFR)는 일반적 위기 상황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안정적 자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

$$NFSR = \frac{\text{안정자금 인정금액}^*}{\text{안정자금 필요금액}^{**}} > 100\%$$

* 안정자금 인정금액 : 자본 및 부채를 ASF(available stable funding) factor로 가중 평균한 금액의 합계액

** 안전자금 필요금액 : 자산을 RSF(required stable funding) factor로 가중 평균한 금액의 합계액

- BCBS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 평가를 반영하여 유동성충당비율의 경우 2011년 관찰기간을 적용한 후 2015년 시행 예정

- 한편, 순안정자금비율의 경우 2012년부터 관찰기간 적용 후 2018년 시행 예정

2.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

-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(SIFI)에 대한 정책 체계, 작업절차 및 이행일정을 마련
 - 각국에서는 자국내 SIFI의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,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Global-SIFI로 별도 지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 부과하기로 합의
-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금융을 통해 대마불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IFI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 검토
 - FSB, BCBS 등은 규모, 상호연계성,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G-SIFI 권고를 적용할 금융기관을 2011년 중반까지 지정하고, 2012년 말 각국의 G-SIFI 정책에 대한 최초 상호평가 실시
 - 2011년 말까지 추가자본 부과, 조건부자본 활용, 채권자 구제제도 등 손실흡수력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, 금융기관 규모 등에 따라 SIFI 간에도 차등적으로 자본 부과
- Global-SIFI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하여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에게 우선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.
 -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경우 세계적인 대형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아, G-SIFI에 해당하는 은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